

經濟週評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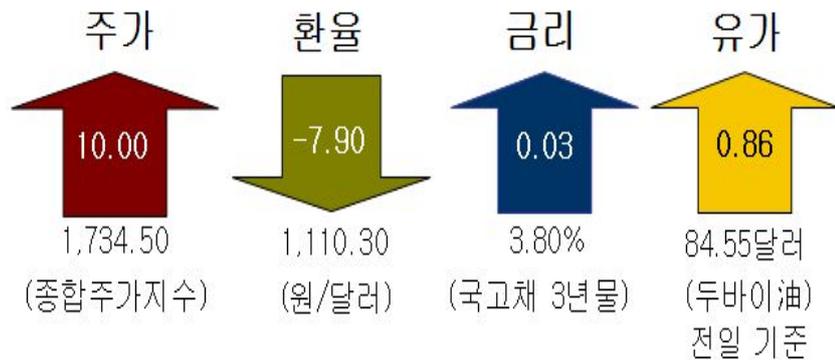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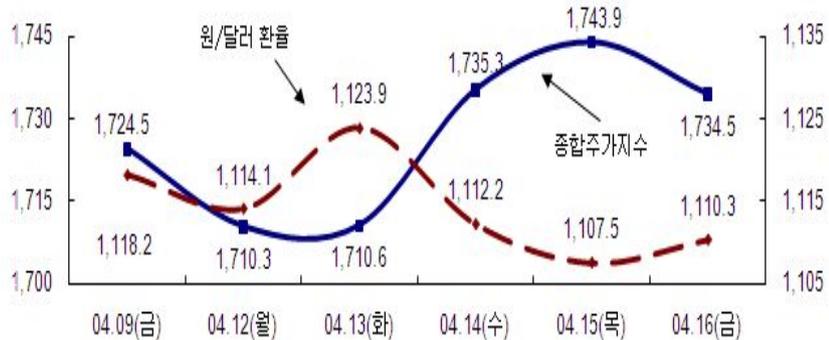
10-15(통권 395호)
2010.04.16.



- **국내 빈곤층의 구조적 특징과 과제**
- **고령·고학력층 빈곤 대책 시급**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4.9~4.16)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국내 빈곤층의 구조적 특징과 과제	
- 고령·고학력층 빈곤 대책 시급	1
주요 국내 외 경제지표	12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관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경제연구본부 : 이 부 형 연구 위원 (2072-2011, lbh@hri.co.kr)
 전 선 형 연구 원 (2072-6214, shjeon@hri.co.kr)

Executive Summary

□ 국내 빈곤층의 구조적 특징과 과제

- 고령·고학력층 빈곤 대책 시급

(빈곤층의 개념과 추이) OECD는 중위 가구 소득의 50% 를 상대적 빈곤선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라 통계청이 제공하는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국내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 및 농가를 포함한 전국 가구 가운데 빈곤층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즉, 상대적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빈곤 가구는 2006년 232.7만 가구에서 257.1만 가구로 24.4만 가구(10.5%) 증가한 것이다.

(빈곤층 가구의 구조적 특징) 국내 빈곤 가구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해보면, 첫째, 고령층의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다. 국내 노인 빈곤가구의 비중은 2006년 35.1%에서 2009년 42.6%로 7.5%p 상승하며 빠르게 증가하였다. 연령별로도 60대 이상 고령 빈곤가구가 2006년 54.4%에서 2009년 59.7%로 5.3%p 상승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1인 노인 빈곤가구의 비중이 60% 내외로 독거노인의 빈곤화가 문제되고 있다. 둘째, 맞벌이 부부의 빈곤층이 증가하였다. 전체가구 중 맞벌이 빈곤가구는 2006년 2.6%에서 2009년 5.4%로 2.8%p 증가하였다. 특히,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맞벌이 빈곤가구가 2006년 4.3%에서 2009년 11.5%로 급증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경기 침체로 빈곤 가구의 맞벌이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셋째, 고학력 빈곤층이 급증하였다. 대졸 이상 고학력 빈곤층이 2009년에 11.7%로 2006년 대비 2.6%p로 증가하였다. 특히, 40대 이상 대졸 빈곤가구의 비중이 2009년 32.7%로 가장 높았으며 2006년 대비 13.1%p 급증하였다. 또한, 대졸 이상 빈곤가구 중 관리·전문·사무 종사자 비중이 2009년 29.3%로서 2006년 대비 11.4%p 급증하여 고학력 전문직의 저임금·고용 불안이 확대되고 있다. 넷째, 준 실업상태 가구주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직업별 빈곤가구의 구성을 보면, 2009년에 빈곤 가구주는 기태(무직 및 분류 불능)가 64.1%로 가장 높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도 14.5%로 준 실업상태 가구주가 77.6%에 달하고 있다.

(국내 빈곤층 증가 원인) 빈곤층이 증가된 원인으로는 첫째, 분배구조 악화로 인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1985년 67.4%에서 2007년 62.7%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수지 악화가 빈곤층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중이 2004년 57.4%에서 2009년 68.7%로 급증한 것이 빈곤층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저임금·고용불안 상태의 국내 근로 빈곤층이 약 273만 명, 총 취업자의 11.6%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빈곤층을 확산시키는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정책적 대응방안) 국내 빈곤 가구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첫째,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화하고 기초노령연금의 현실화와 고령자에 대한 노후 생활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공공 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맞벌이 부부의 소득 안정화를 지원해야 한다. 셋째, 인턴십과 산학협동 프로그램 내실화, 고용정보 시스템 혁신과 직업훈련 강화 등을 통해 고학력 빈곤층의 취업경쟁력을 제고해야 한다. 넷째, 서민층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근로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 국내 빈곤층 가구의 구조적 특징 >

국내 빈곤층 가구의 구조적 특징	
빈곤층의 개념과 추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OECD는 중위소득 50% 를 상대적 빈곤선으로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정의에 따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분석 - 국내 빈곤층 증가: 상대적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상승
국내 빈곤층 가구의 구조적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층의 빈곤화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 빈곤가구, '06년 35.1%→'09년 42.6%로 7.5%p 증가 · 특히 1인 노인 빈곤가구의 비중이 60% 내외로 매우 높아 독거노인의 빈곤화 우려됨 - 맞벌이 부부의 빈곤층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6년 2.6%→'09년 5.4%, 2.8%p 증가 - 고학력 빈곤층 급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졸 이상 고학력 빈곤층, '09년 11.7% · 40대 이상 대졸 빈곤가구 비중 '09년 32.7% · 대졸 이상 빈곤가구 중 관리·전문·사무종사자 비중 '09년 29.3% - 준실업 상태 가구주 지속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직 및 분류 불능 64.1%, 단순 노무종사자 14.5%로 준실업 상태의 가구주 77.6%

국내 빈곤층 증가 원인	
빈곤층 증가 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배구조 악화로 인한 소득 양극화 심화로 중산층 붕괴 - 경기침체로 악화된 가계수지가 빈곤층 확산에 영향 - 저임금·고용 불안 상태의 '근로 빈곤층' 확산

정책적 대응방안	
정책적 대응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정책 강화와 노후 생활지원 확대 - 공공 보육시설 확충과 주거비 부담 완화 - 대학 교육 및 직업 훈련의 혁신을 통한 취업 경쟁력 제고 -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고용 정보 시스템 혁신 등 맞춤형 복지정책 필요

1. 빈곤층의 개념과 추이

○ (일반 개념) 특정 가구에 대해 소득 또는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타 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지 아닌지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판단될 때 빈곤층으로 분류

-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를 보면 중위 가구 소득 또는 평균 가수 소득을 기준으로 빈곤선을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빈곤층을 도출
 - OECD, EU 등은 중위 가구 소득의 50~60%를 빈곤선으로 규정하고 그 미만인 가구를 빈곤층으로 정의
 - 한편, 권순원 외(1993), 배준호(1998)는 가구 소비 지출을 기준으로, 평균 가구 소비 지출의 50~60%, 또는 가구 소비 지출 하위 20%를 빈곤층으로 정의

○ (빈곤층 구조 분석 기준) 본고에서는 통계청이 소득분배지표로 작성하고 있는 상대적 빈곤율을 기준으로 통계청의 MDSS(Micro Data Service System)에서 제공하는 '가계동향조사'의 '06~09년 가구표본을 이용하여 국내 빈곤층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

- 통계청에서는 OECD의 기준을 적용하여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할 때 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상대적 빈곤층이라 정의하며 상대적 빈곤층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상대적 빈곤율이라 함

< 빈곤층의 정의 >

구분	상대적 빈곤선
OECD	- 중위 가구 소득의 50% 미만 가구
World Bank	- 개발도상국 : 평균 가구 소득의 1/3 - 선진국 : 평균 가구 소득의 1/2
EU	- 중위 소득 60% 미만 소득
V. Fuchs	- 중위 가구 소득의 50%
P. Townsend	- 빈곤층 : 평균 가구 소득의 80% 이하 - 극빈층 : 평균 가구 소득의 50% 이하
일본	- 근로자 가구 소비 지출의 68% - 상대적 빈곤선 : 표준세대(3인) 186.3만 엔 이하
미국	- 1964년 사회보장청 기준에 의해 빈곤선이 정해졌으나, 이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최저 연간 소득액이 추정됨
권순원 외(1993)	- 평균 가구 소비 지출의 50~60%
배준호(1998)	- 가구 소비 지출 기준 하위 20%

○ (빈곤층 지속 증가) 1인 및 농가를 포함한 전국 가구 가운데 빈곤층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즉 상대적 빈곤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빈곤층 가구 수가 2009년 가처분소득 기준 257만 가구에 이룸

- 도시 빈민층 증가 : 가처분 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율을 살펴보면 1인 가구와 농가를 포함한 전국 가구의 경우 2006년 14.4%에서 2009년 15.2%로 0.8%p 상승, 같은 기간 2인 이상 비농가 가구는 12.7%에서 13.1%로 0.4%p, 2인 이상 도시 가구는 12.0%에서 13.1%로 1.1%p 상승함

< 가구원 수별 상대적 빈곤율 추이 >

(%, %p)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06년 대비 '09년 증감(%p)
전국가구 (1인 및 농가 포함)	시장소득	16.7	17.4	17.5	18.1	1.4
	가처분소득	14.4	14.8	15.0	15.2	0.8
전가구 (2인 이상 비농가)	시장소득	14.7	15.4	15.0	15.4	0.7
	가처분소득	12.7	12.9	13.0	13.1	0.4
도시가구 (2인 이상)	시장소득	13.7	14.8	14.7	15.3	1.6
	가처분소득	12.0	12.6	12.5	13.1	1.1

자료 : 통계청.

주 : 시장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가처분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 비소비지출.

- 2006년 대비 빈곤층 가구 24.4만 가구 증가 : 국내 빈곤층 가구는 2006년 232.7만 가구에서 2009년에는 257.1만 가구로 24.4만 가구(10.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1인 및 농가 포함 전국 가구 상대적 빈곤율 및 빈곤층 가구 수 추이 >

(단위 : 1만 가구, %, %p)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06년 대비 '09년 증감(%p)
상대적 빈곤율	14.4	14.8	15.0	15.2	0.8
빈곤층 가구 수	232.7	243.0	250.1	257.1	0.1

자료 : 통계청 추계 가구 및 통계청 상대적 빈곤율을 이용하여 현대경제연구원 이 계산.

주 : 가처분소득 기준, 빈곤층 가구 수 = 통계청 추계 가구×상대적 빈곤율.

2. 국내 빈곤층 가구의 구조적 특징

○ 고령층 빈곤화 심화

- 국내 빈곤 가구 중 노인가구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 국내 빈곤 가구에서 노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35.1%에서 2009년 42.6%로 7.5%p 상승하며 노인 빈곤가구가 빠르게 증가
 - 특히, 일반가구 중 빈곤 가구는 2006년 58.4%에서 2009년 50.6%로 8.1%p 감소하고 있어 노인 빈곤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연령별로도 60대 이상 고령 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
 - 연령별로 가구주가 60대 이상인 가구의 50% 이상이 빈곤층의 구분됨
 - 더욱이, 60대 이상 고령 가구의 비중은 2006년 54.4%에서 2009년 59.7%로 5.3%p 증가하며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은퇴 인구 증가로 인한 고령 가구의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 빈곤층 가구의 가구 유형별 비중 추이(전체가구) >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06년 대비 '09년 증감(%p)
노인 빈곤가구	35.1	38.6	42.8	42.6	7.5
모자 빈곤가구	3.6	3.2	1.9	2.0	-1.6
맞벌이 빈곤가구	2.6	3.1	2.1	5.4	2.8
일반 빈곤가구	58.4	55.2	53.3	50.6	-8.1

자료 : 통계청.

주 : 1) 가처분소득 기준임,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비소비지출.

2) 2009년 맞벌이 빈곤가구 비중에는 가구주가 노인이면서 동시에 맞벌이인 가구가 포함됨.

3) 노인가구는 18세 미만 가구원과 65세 가구원으로 이루어진 가구, 모자가구는 엄마와 미만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 맞벌이 가구는 가구주와 배우자가 취업한 가구, 일반가구는 그 외 기타가구임.

- 노인 가구 중에서도 혼자 거주하는 독거노인의 빈곤화가 문제

- 전체 또는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빈곤층에서 일반 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1인 가구는 노인 빈곤가구의 비중이 60% 내외로 일반 가구를 넘어섬
- 이에, 노인 빈곤가구의 대부분이 1인 가구인 것으로 추정되며 1인 노인 가구의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빈곤층 가구의 가구 유형별 비중 추이 (1인 가구) >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06년 대비 '09년 증감(%p)
노인 빈곤가구	60.3	64.3	64.3	58.3	-2.0
일반 빈곤가구	39.7	35.7	35.7	41.7	2.0

자료 : 통계청.

주 : 가처분소득 기준임,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비소비지출.

○ 맞벌이 부부의 빈곤층이 증가

- 맞벌이 빈곤가구 증가

- 전체가구의 가구 유형에 따른 분류에서 맞벌이 빈곤가구가 2006년에 2.6%에서 2009년 5.4%로 2.8%p 증가하며 맞벌이 빈곤가구가 증가(p.3 표 참조)

- 특히,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맞벌이 빈곤가구가 가장 큰 증가세를 보임

- 2인 이상 가구에서 맞벌이 빈곤가구는 2006년 4.3%에서 2009년 11.5%로 7.2%p 증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 이는 국내 경기 하락으로 빈곤층으로 전락한 가구의 부부 맞벌이가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빈곤층 가구의 가구 유형별 비중 추이 (2인 이상 가구) >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06년 대비 '09년 증감(%p)
노인 빈곤가구	19.7	22.5	24.0	25.7	6.0
모자 빈곤가구	5.7	4.9	3.8	3.8	-1.9
맞벌이 빈곤가구	4.3	4.2	4.4	11.5	7.2
일반 빈곤가구	70.4	68.3	67.8	60.0	-10.4

자료 : 통계청.

주 : 2009년 맞벌이 빈곤가구는 가구주가 노인이면서 동시에 맞벌이인 가구가 포함된 수치임.

○ 고학력 빈곤층이 급증

- 대졸 이상 고학력 빈곤층이 급증

- 가구주의 학력이 높을수록 빈곤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일반적 특징은 보이나 대졸 이상 고학력 빈곤가구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
- 학력별 빈곤층 추이를 살펴보면, 대졸 이상 고학력자의 경우 2006년에 9.1%에서 2009년 11.7%를 기록하며 2.6%p 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중졸 이하의 저학력 가구는 -2.5%p 오히려 감소함

< 빈곤층 가구의 학력별 비중 추이(전체가구) >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06년 대비 '09년 증감(%p)
대학원졸	0.6	0.4	0.6	0.9	0.3
대졸 (전문대 포함)	8.5	9.1	8.8	10.8	2.3
고졸	27.1	25.1	24.1	27.1	0
중졸 이하	63.8	65.4	66.5	61.3	-2.5

자료 : 통계청.

주 : 최종학력 기준, 가처분소득 기준.

- 특히, 40대 이상 대졸 이상의 장년층 빈곤화가 심화되고 있음

- 대졸 이상 빈곤가구의 연령별 비중을 보면, 40대가 2009년 3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06년에 19.6%에서 2009년 32.7%로 13.1%p가 상승하였음
- 또한, 30대 대졸 이상 학력자의 빈곤가구도 2009년 25%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대졸 이상 빈곤가구의 연령별 비중 >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06년 대비 '09년 증감(%p)
20대 이하	9.1	9.5	10.5	13.2	4.1
30대	24.8	24.5	34.2	25.0	0.2
40대	19.6	24.3	23.0	32.7	13.1
50대	10.7	12.7	12.9	8.8	-1.9
60대 이상	35.9	29.0	19.4	20.3	-15.6

자료 : 통계청.

주 : 최종학력 기준, 가처분소득 기준.

- 대졸 이상 빈곤가구 중에서 관리·전문·사무 종사자의 빈곤화가 뚜렷
 - 관리·전문·사무 종사자의 빈곤 가구 비중은 2006년 17.9%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 등으로 30.6%로 증가하였고 2009년에 소폭 하락하였지만 29.3%로 2006년 대비 11.4%p 증가하였음
 - 이들은 일반관리자, 교육전문가 등으로 전문직 범위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저임금·고용 불안 상태에 있는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음

< 대졸 이상 빈곤가구의 직업별 비중 >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관리자	0.1	1.0	1.8	5.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13.6	18.2	24.0	17.9
사무 종사자	4.2	3.6	4.8	6.2
서비스 종사자	2.5	1.9	2.4	2.5
판매 종사자	6.1	5.6	3.8	6.2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8	0.0	0.2	0.0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3	7.1	5.9	2.2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0.9	2.7	3.5	4.3
단순 노무 종사자	4.2	3.1	5.9	3.4
기타(무직 및 분류 불능)	62.6	56.8	47.8	52.1

자료 : 통계청.

○ 준 실업상태의 가구주 증가세는 지속

- 직업별로 살펴보면, 준 실업상태의 가구주의 빈곤화는 지속
 - 빈곤 가구의 가구주는 60% 내외가 기타(무직 및 분류 불능) 상태였으며 근로 상태이더라도 주로 저임금·임시 직종에 종사하고 있음
 - 2009년 빈곤 가구주의 직업별 비중은 기타(무직 및 분류 불능)가 63.1%로 가장 높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도 14.5%로서 준 실업상태의 가구주가 77.6%로 계속 증가하고 있음

< 빈곤층 가구의 가구주 직업별 비중(전체가구) >

(%)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관리자	0.5	0.3	0.4	0.4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2.7	3.1	2.9	2.0
사무 종사자	1.7	1.6	0.8	1.9
서비스 종사자	7.4	5.9	4.9	4.1
판매 종사자	6.2	5.0	4.6	5.5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0.3	0.2	0.2	0.5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5.8	6.1	1.0	4.8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4.3	3.4	2.8	3.3
단순 노무 종사자	12.2	11.7	12.8	14.5
기타(무직 및 분류 불능)	58.8	62.9	65.5	63.1

자료 : 통계청.

3. 국내 빈곤층 증가의 원인

○ 분배구조 악화로 인해 소득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중산층이 갈수록 줄어들며 빈곤화됨

- 도시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율 추이에서 중산층은 1985년 67.4%에서 2007년 62.7%로 4.7%p 감소하였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임

○ 계층 간 상승이 어려워져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의 전락이 더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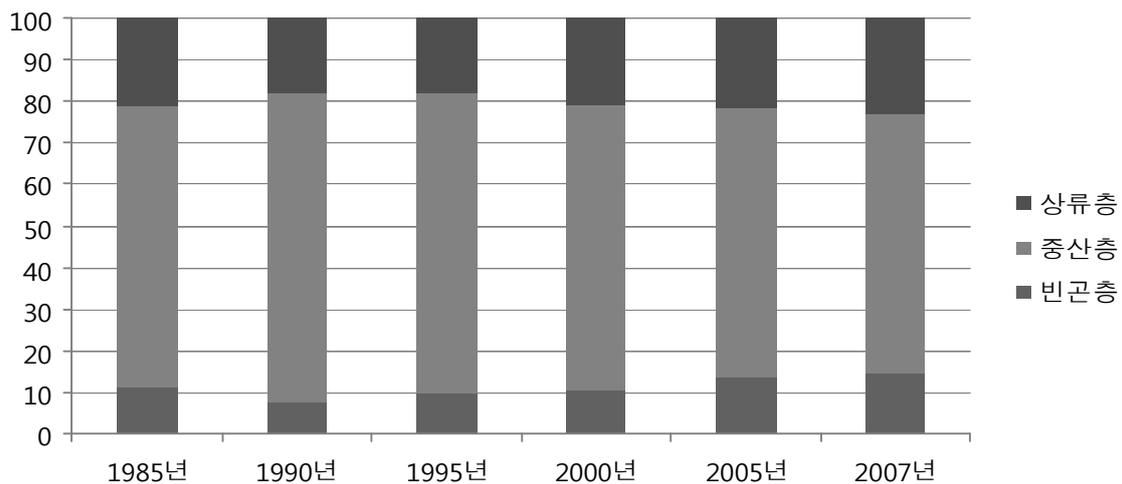
- 중산층의 붕괴로 사라져간 중산층 중 일부는 상류층으로 올라가지만 나머지는 빈곤층으로 전락하는데, 계층 상승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빈곤층의 증가현상이 더 두드러짐

- 도시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율 추이를 살펴보면, 중산층은 '85년에 67.4%에서 '07년 62.7%로 4.7%p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에 상류층은 1.5%p, 빈곤층은 3.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도시가구의 소득계층별 비율 추이(총소득 기준) >

(%, %p)

구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85년 대비 '07년 증감(%p)
중위소득 대비 가구비중 (%)	빈곤층	11.2	7.6	9.8	10.5	13.8	14.4	3.2
	중산층	67.4	74.2	72.0	68.5	64.7	62.7	-4.7
	상류층	21.4	18.2	18.2	21.0	21.4	22.9	1.5



자료 : 유경준(2009), 「빈곤감소적 성장: 정의와 한국에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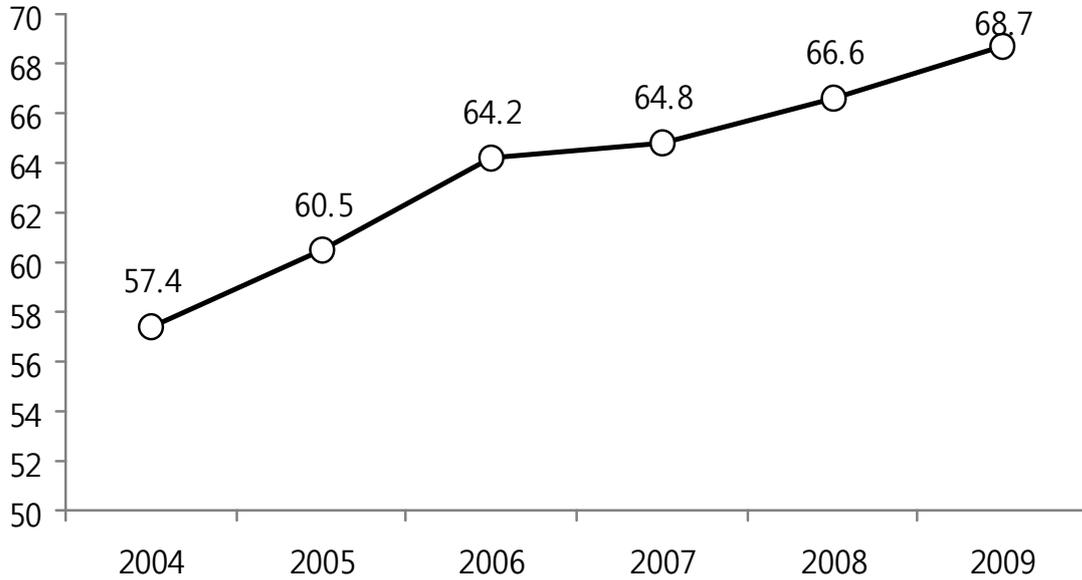
주 : 중위소득의 50% 미만, 50~150%, 150% 이상을 기준으로 각각 빈곤층, 중산층, 상류층으로 구분함.

○ 경기 침체로 인한 가계수지 악화가 빈곤층의 확대에 영향을 미침

- 국내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반면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어 가계 적자가 커짐에 따라 빈곤층이 증가할 확률이 높아지게 됨
- 2004년~2009년 국내 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중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급속한 증가세를 보여 가계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 총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중 >

(%)



자료 : 한국은행.

주 : 각 연도 연말 기준임.

○ 저임금·고용 불안 상황에 놓여있는 근로 빈곤층의 확대가 영향을 미침

-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용시장이 취약해짐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는 감소하고 임시직 중심의 고용이 증가해 근로 빈곤층¹⁾이 확대됨
- 2008년 기준 국내 근로 빈곤층은 273만 명을 기록하며 총 취업자 2,357만 명의 약 11.6% 수준으로²⁾ 빈곤층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침
- 근로 빈곤층은 임금 상승률이 주거비나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해 생활비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근로 상태를 계속 유지하더라도 생활고를 겪으며 결국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됨

1) 근로 빈곤층(Working Poor)란, 일은 하고 있지만 생활보호 수준 정도의 수입으로 경제 생활에 곤란을 겪는 계층을 말함.

2) '사전적 워킹푸어 대책 시급하다' 한국경제주평 2010.1.15 현대경제연구원

4. 정책적 대응방안

○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확대하고 고령자에 대한 생활지원을 강화

- 고령층 비율 증가에 맞춰 고령자 일자리 확충 방안을 마련
 - 예를 들어, 고령자로 구성된 「실버콜센터」를 통해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고, 유적지 안내서비스를 고령자 중심으로 실시하는 등 고령자에 적합한 사회적 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를 발굴함
- 고령층의 생활지원을 위해 기초노령연금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검토
 - 2010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50만 4천원인데, 경제적으로 열악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월 최대 90,000원(노인 단독가구, 2010년 4월부터 인상)이 지원되고 있어 좀 더 현실화 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를 위한 임금피크제 활성화와 평생교육시스템 강화

-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통해 고령근로자의 퇴직연령을 늦추고, 고령자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등 고령자의 재고용가능성을 제고
 - 은퇴 연령을 가능한 늦추고, 은퇴 이후에도 재고용가능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근로자의 평생 직업능력 개발 프로그램을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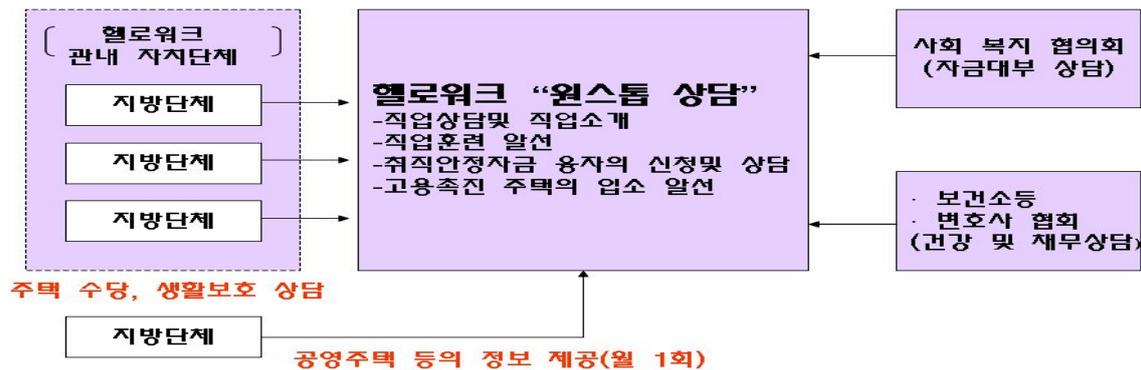
○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고 보육비용을 지원하며, 장기 전세 및 임대 아파트의 보급을 확대

- 맞벌이 부부가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보육시설과 심야 보육시설을 확충함은 물론 보육비용의 지원과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맞벌이 부부의 소득 안정화를 지원
- 장기 전세 및 임대 아파트의 보급을 확대하고, 주거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맞벌이 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

○ 대학교육 및 직업훈련의 혁신을 통해 고학력 빈곤층의 취업경쟁력 제고

- 청년층이 직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경력을 형성하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산학 협동프로그램을 내실화하고, 취업 지원을 강화함
 - 대학생의 재학 중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학교육과 산업현장을 연결하는 산학 협동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등 교육과정을 혁신함
 - 아울러, 고용정보 제공시스템인 워크넷을 혁신하고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편하여 실업자가 다시 고용시장에 복귀하도록 도와줌
- 우리나라 워크넷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일본의 헬로워크(Hello Work: 고용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77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2009년12월부터 취업상담, 주택수당지급, 생활보호서비스 등을 원스톱 서비스하고 있음

< 원스톱 서비스 체제로 강화된 헬로 워크 체계 >



자료 : 內閣府

○ 일자리 창출과 중산층 확대를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 필요

- 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활력 증진이 빈곤층 감소의 근본 해법
- 실업자 및 근로빈곤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 실시
 - 실업자 및 근로빈곤층이 필요로 하는 실업수당, 직업훈련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함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식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시

이 부 형 연구위원 (2072-2011, lbh@hri.co.kr)

전 선 형 연구원 (2072-6214, shjeon@hri.co.kr)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8					2009					2010 (E)
	년	1/4	2/4	3/4	4/4	년	1/4	2/4	3/4	4/4	
미국	0.4	-0.7	1.5	-2.7	-5.4	-2.4	-6.4	-0.7	2.2	5.9	2.7
유로 지역	0.7	0.8	-0.3	-0.4	-1.9	-4.1	-2.5	-0.1	0.4	0.1	1.0
일본	-3.7	2.7	-4.4	-4.9	-10.3	-5.2	-13.7	6.0	-0.6	3.8	1.7
중국	9.0	10.6	10.1	9.0	6.8	8.7	6.2	7.9	9.1	10.7	10.0
한국	2.2	5.5	4.3	3.1	-3.4	0.2	-4.2	-2.2	0.9	6.0	4.5

주: 1) 2008, 2009년 한국자료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잠정치(P).
 2010년 전망치(E)는 IMF 2010년 1월 기준임.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4월9일	4월16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2.21	3.54	3.83	3.89	3.85	-0.04p
	엔/달러	90.76	96.65	92.93	93.44	93.02	-0.42¥
	달러/유로	1.4042	1.4141	1.4413	1.3359	1.3573	0.0214\$
	다우존스지수	8,776	8,447	10,428	10,927	11,145	218p
	닛케이지수	8,860	9,958	10,655	11,204	11,274	70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41	4.16	4.41	3.77	3.80	0.03p
	원/달러	1,259.5	1,273.9	1,164.5	1,118.2	1,110.3	-7.9원
	코스피지수	1,124.5	1,390.1	1,682.8	1,724.5	1,734.5	10.0p

주: 4월 16일 해외지표는 전일(4월 15일) 기준임.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8년말	2009년		2010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4월9일	4월16일	
국제 유가	WTI	44.61	69.08	79.35	87.14	85.42	-1.72\$
	Dubai	36.45	71.85	78.06	83.55	84.41	0.86\$
CRB선물지수		229.54	249.96	283.38	275.25	279.75	4.50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